

## 의학

2015년 의학계는 각 병원과 소속 의료진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진료에 매진하면서 예년에 비해 주목받은 연구 성과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이나 똥똥한 치매환자가 오래 산다는 비만의 역설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 ■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손가락 괴사’ 사례 첫 보고

병원에서 방사선 진단장비에 장기간 노출된 의사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괴사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이는 의료용 방사선 진단장비의 피폭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5년 1월 15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원광대의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김유미 교수팀은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A(49)씨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피부괴사 증상이 생긴 사례를 2014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공식 발표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가 방사선 노출로 손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문헌 보고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논문을 보면 이 환자는 피부괴사 첫 진단 당시인 2013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척추 주사요법을 월평균 100건 이상씩 17년간 시행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양측 엄지와 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발생했으며, 피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면서 손톱 주변으로 통증도 느껴질 정도였다. 이에 환자는 피부과 등을 찾아 보습 및 광화학요법(photochemotherapy)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증상은 더욱 나빠졌고 왼쪽 검지에 1cm<sup>2</sup>의 괴사가 발생했다. 이후 환자는 원광대 산본병원을 찾아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고 나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연고를 이용해 치료했지만 괴사 부위는 더욱 커지고 통증도 악화됐다.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혈액 피부 재생술도 시도했지만 약간의 통증 호전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결국, 의료진은 이 환자의 손가락 괴사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조직을 이식한 뒤 경과를 관찰 중에 있다.

### ■ 야생진드기 사람 간 전파 국내 첫 확인…의료진 2차 감염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돌보던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2차 감염 사고가 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감추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SFTS 바이러스의 의료진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야생진드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5년 2월 25일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2014년 9월 3일 서울의 S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 여성(당시 68세)이 위독한 채로 실려 왔다. 이 여성은 패혈증이 의심돼 경기도의 한 병원 에서 입원 치료 중 의식이 희미해지고 상태가 악화하자 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환자는 응급실로 온 지 하루만인 9월 4일 새벽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거듭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환자에 대한 혈청 분석결과는 사망 14일 후인 9월 18일에 나왔는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숨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일부도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혈청검사를 한 결과, 4명이 SFTS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 4명의 의료진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이었다.

해당 병원 측은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신체분비물에 의해 2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다행히 2차 감염된 의료진들은 모두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SFTS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전공의는 발열, 혈소판 감소 등의 중증 증상으로 감염내과에서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의료진들은 사망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당시 SFTS와 증상이 비슷한 ‘쯔쯔가무시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2차 감염에 대한 주의 없이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반점 모양의 발진 등의 증상이 SFTS와 비슷하다.

SFTS는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2013년 국내 치사율은 47.2%에 달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1~2주의 잠복기 이후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앓는다. 이후 설사가 나거나 근육통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의식이 떨어지는 뇌 증상을 보이다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사망한다.

그동안 이 바이러스는 진드기에 물려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이 때문에 2014년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유행할 당시에도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며, 감염 환자와의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에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도 전파되는 것으로 드러나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SFTS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은 이번 경우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지만, 세계적으로는 2012~13년에 중국에서 2차 감염이 보고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의료진이 투고한 논문을 보면 5건의 2차 감염 중 3건은 가족 간의 신체 접촉이 원인이었다.

울산의대 감염내과 김성환 교수는 “SFTS는 에볼라보다 국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큰 감염병”이라며 “특히 SFTS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진드기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약 발열, 혈소판 감소, 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SFTS로 추정될 때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운이나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 약간 뚱뚱한 치매환자가 오래 살아...치매에도 비만의 역할

같은 치매 환자라도 마른 사람보다는 약간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장기간의 추적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이는 비만도와 치매 환자의 사망위험 사이에 ‘비만의 역할’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2015년 3월 23일 삼성서울병원 서상원 교수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김중훈 박사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알츠하이머 병 관련 국제 학술지(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발표한 논문에서 따르면 비만의 기능쇠인 ‘체질량지수(BMI)’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사망률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579명과 치매연구센터에 등록된 환자 1천911명 등 총 2천490명의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를 43.7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이 결과 체질량지수가 낮은 저체중 환자의 경우 정상체중 환자보다 사망위험이 1.8배 높았으며, 반면 약간 뚱뚱한 환자는 사망위험이 정상체중 환자의 60% 수준에 그쳤다.

연구결과를 자세히 보면 체질량지수에 따른 사망률은 저체중(BMI 18.5 미만) 그룹이 가장 높았다. 181명 중 53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29.3%에 달했다. 이와 달리 과체중 그룹(BMI 23 이상~25 미만)은 같은 기간 사망률이 14.1%(626명 중 88명 사망)로 전체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상체중 그룹(BMI 18.5 이상~23 미만)과 비만그룹(BMI 25 이상)의 사망률은 각각 18.5%(1천127명 중 208명), 20.7%(556명 중 115명)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체중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의 사망률이 높는데 대해 연구팀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운동량이나 이동량 또한 덜달아 줄어든 탓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저체중 환자의 경우 영양실조와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큰 점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보통 영양실조 상태에서는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감염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과체중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은 이유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의 역할’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다만, 이에 따른 명확한 인과관계는 이번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한반도 온난화로 ‘꽃가루 알레르기’ 늘었다”

한반도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도에서 삼나무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15년 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의대 환경보건센터 이근화 교수팀은 제주도에 사는 초·중·고생 1천225명을 대상으로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감작률(알레르기 반응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15년 4월 6일 밝혔다.

보통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꽃가루 알레르기(화분증)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삼나무는 온난화에 민감한 품종이다. 삼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알레르겐)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초·중·고등학생 1천225명 중 46.2%(566명)가 아토피 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삼나무 꽃가루가 아토피 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17.6%였다.

제주도 내에서도 서귀포시 거주 학생들의 삼나무 꽃가루 아토피 유병률(23.8%, 156명)이 제주시(10.4%, 59명)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제주시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서귀포시에서 삼나무 꽃가루 발생이 빠르고, 양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만 보면 삼나무 꽃가루 감작률이 1998년 9.7%에서 2008년 18.2%, 2013년 24.4%로 15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한반도의 온난화로 관련 질환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1970년부터 2011년 사이 서귀포시의 평균 기온은 2도 상승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알레르기, 천식·면역(Allergy, Asthma & Immunology)’ 3월호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 ■ “30세 이상 10명 중 1~2명은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경기지역에서만 한 해 30세 이상 성인 1만5천여 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에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도권 연간 사망자수(30세 이상)의 15.9%를 차지하는 수치로,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주위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한다. 1mm의 1천분의 10이 1μm(마이크로미터)인데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한다. 영어로는 10μm보다 작은 먼지입자라는 말을 줄여서 PM10이라고 한다. 또 미세먼지 중에 지름이 2.5μm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PM 2.5라고 부른다. 머리카락의 지름은 대략 80μm이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팀은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팀과 공동으로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등의 대기오염(분진)이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15년 4월 20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직업환경의학회지에 발표됐다.

대기오염은 보통 미세먼지와 같은 분진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들 물질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위해물질로 보면 된다. 하지만, 대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다.

논문을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사는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같은 연령대 총 사

망자의 15.9%(1만5천346명)를 차지했다. 예컨대, 1만5천 명이 상이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수년 또는 수개월 먼저 사망한 셈이다.

또 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일으켜 병원 입원율도 높였다.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질환별로 보면 ▲호흡기질환 1만2천511명(모든 연령대) ▲심혈관질환 1만2천351명(모든 연령대) ▲폐암 1천403명(모든 연령대) ▲천식 5만5천395명(18세 미만 1만1천389명, 18세 이상 4만4천6명) ▲만성기관지염 2만490명(모든 연령대) ▲급성기관지염 27만8천346명(18세 이하)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오염에 의한 폐암환자 발생 규모는 이번 연구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어서 앞으로 미세먼지 등이 폐암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할 전망이다.

### ■ “배아줄기세포로 실명치료 가능성”…상용화는 지켜 봐야

배아줄기세포로 실명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 임상시험이어서 향후 실명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 송원경 교수팀은 ‘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치료제’의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학술지 ‘스템 셀 리포트(STEM CELL REPORTS)’에 2015년 5월 1일(한국시각)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실명이 진행 중인 환자에게 이식해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는 임상 초기(1상) 시험으로, 스타가르트병 환자(2명)와 노인성 황반변성 환자(2명) 등 총 4명의 환자의 눈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타가르트병은 눈의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이 병 환자 50% 이상이 50세 이전에 완전 실명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으로 생겨난 신생혈관 때문에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황반’이 손상돼 수개월 또는 2년 내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중증 질환이다.

임상에 쓰인 배아줄기세포치료제는 불임 치료 과정에서 폐기되는 수정란에서 얻은 배아줄기세포를 망막상피세포로 분화시켜 만든 것으로, 차바이오텍과 미국의 오키타 테라퓨틱스(전 ACT사)가 공동 개발했다. 식약처는 2011년 국내 최초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로 임상 허가를 내줬다.

미국에서는 오키타 테라퓨틱스가 차바이오텍보다 앞선 2014년 10월 같은 방식의 임상시험 결과를 국제학술지 랜싯(LANCET)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4명의 환자에게 배아줄기세포를 주사하고 1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모두에게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건 4명 중 3명에게서 시력이 개선됐다는 점이다.

당뇨망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국제 표준 시력표를 기준으로 치료 전 1개의 글자만 읽을 수 있었던 환자가 13개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등 사람마다 9개에서 19개의 글자를 더 읽는 시력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오키타 테라퓨틱스의 임

상연구에서 18명 중 10명의 시력이 호전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 셈이다.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주사한 줄기세포가 5만 개 정도로 가장 낮은 용량이었다면 만큼 향후 추가 임상시험에서 10만~20만 개 정도의 고용량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시력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배아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질병 치료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은 차바이오텍과 미국의 오키타 테라퓨틱스뿐이다.

### ■ 전립선암 사망률 30년간 10배 급증…암 사망 증가율 1위

1980년대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성의 전립선암(10배)과 여성의 췌장암(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률이 가장 크게 줄어든 암은 남녀 모두 위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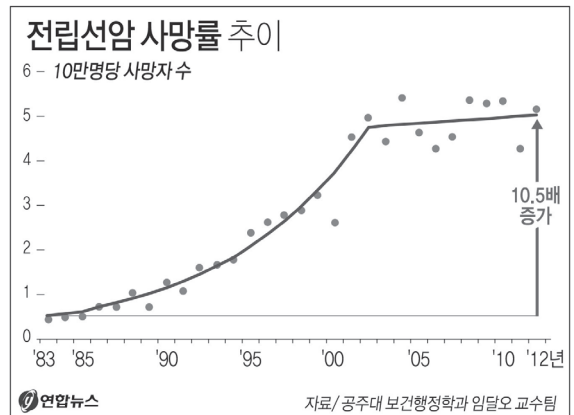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임달오 교수팀(단국대 의대 하미나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승인명 연구원은 30년(1983~2012년) 사이 국내 13개 주요 암의 사망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5년 11월 23일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암 역학(Cancer Epidemiology)’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983년 당시 남성이 위암(83.5명), 간암(48.6명), 폐암(18.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은 위암(23.1명), 간암(8.0명), 자궁암(7.2명) 순이었다.

하지만, 30년이 흘러 2012년에는 남성이 폐암(44.4명), 간암(34.0명), 위암(22.4명) 등의 순으로 변화했으며, 여성도 폐암(16.5명), 대장암(14.0명), 위암(13.0명)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2014년 통계청의 사망통계자료와 비교해볼 때 남성과 여성 모두 2012년 이후 변화한 암 사망률 패턴이 지속하고 있다. 주목되는 건 1983년에 대비한 2012년의 연령별표준화사망률(ASR) 변화 추이다.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연령구조를 국가 인구구조로 표준화해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사망자수를 산정한 개념이다.

이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30년간 10.5배가 늘어난 암 사망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대장암(3.7배), 췌장암(2.9배) 등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이처럼 전립선암 사망률이 급증한 요인으로 비만, 지방섭취, 운동부족 등을 꼽았다. 또 대장암과 췌장암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서구형 식사, 과체중, 운동부족, 흡연 등이 꼽혔다. 췌장암의 경우 1994년까지 증가하다 흡연율이 낮아지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여성은 췌장암(4.0배), 비호치킨림프종(3.4배), 뇌암(3.1배) 등의 순으로 암 사망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암 사망 감소율은 남성이 위암(-73.2%), 간암(-30.0%), 식도암(-26.8%) 등의 순으로, 여성은 위암(-73.3%), 간암(-16.8%), 식도암(-63.0%), 자궁암(-56.8%) 등의 순으로 각각 분석됐다.

이 같은 암 사망 감소율에는 암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을 증가와 생활습관 개선 등의 예방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연구팀은 지목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이상만 보면 남녀 비호치킨림프종만 198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 췌장암과 남성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증가폭은 크게 낮아진 상태로 관찰됐다.

## 문학

### ■ 개요

2015년 문학계는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이 다른 크고 작은 이슈를 상쇄할 만큼의 충격을 줬다.

한국 대표 작가로 해외에도 널리 이름을 알린 신경숙이 입은 오명은 그를 둘러싼 대형 출판사의 체면까지 구겼다. 출판사 편집진들이 씁쓸한 여운을 남긴 채 퇴진했고, '재미있는 문학'을 원하는 젊은이 주도로 세대교체의 서막이 올랐다.

국내 소설은 부진을 이어간 가운데 어두운 정치·사회 현실, 돌파구 없는 젊은이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이 주목받았다.

미국 소설가 하퍼 리는 '앵무새 죽이기' 이후 55년 만에 신작을 내놨고, 노벨문학상은 기자 출신 작가에게 돌아갔다.

### ■ 신경숙 표절 논란…'철옹성' 무너뜨린 한 줄 기고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은 한국문학의 지형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16일, 소설가 이응준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게재한 한 편의 글은 문학계의 끓어 있던 부조리를 터뜨리는 역할을 했다.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했던 신경숙은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표절이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부 사과했다.

문제의 작품 '전설'이 수록된 단편집을 출간한 출판사 창비는 물론, 문학동네와 문학과지성사 등 이른바 '3대 출판사'는 감시자 역할에 소홀한 문학 비평으로 스타 작가의 모자람까지 맹목적으로 감싸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창비와 문학동네는 사과와 토론회 제안, 문예지 개편 계획 등에 있어 다소 거만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의 한 부분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흡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 씨.

실망을 안겼다. 한국작가회의와 문화연대, 실천문학 등 주도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으나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한번도 토론자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대형 출판사가 그동안 미뤄 온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백낙청 창비 편집인은 11월 창비 창립 50주년에 맞춰 퇴진했다. 문학동네는 강태형 대표이사와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 7명이 물러났다.

신경숙의 남편이자 문학평론가인 남진우는 11월 말 출간된 '현대시학' 머리말에서 "신경숙을 비롯해 여러 작가의 표절 혐의에 대해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해당 작가를 위해서나 전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소설가 박민규가 초기작인 '삼미 슈퍼스타츠의 마지막 팬클럽'에서, 그림책 작가 최숙희가 '열두 띠 동물 까꿍놀이'에서 각각 인터넷 게시판 글과 일본 그림책을 표절했다고 인정하면서 문학계에서는 표절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 ■ '작가 중심' 문예지, '독자'에게 자리 내주다

젊은 문인 중심 문예지, 독자를 지향하는 문예지가 2015년 잇따라 창간했다.

문학동네의 임프린트인 엘릭시르는 장르소설 전문 격월지 '미스터리아'를 6월 창간했다. 창간호에서는 한국 미스터리 역사의 현황을 정리했고, 2호에서는 '가정 스릴러'를, 3호에선 '스파이'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7월에는 은행나무가 격월간 잡지 '악스트'(Ax)를 창간했다. '비평'이 아닌 '서평'을 추구하는 악스트는 국내외 소설 서평, 소설가 인터뷰 등 오로지 소설 그 자체에 집중했다.

독립잡지 '더 멀리'는 젊은 시인들이 주축이 됐다. "문학·비문학, 등단·비등단,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 잡지의 특징은 시·소설이 아닌 '잡문'이 많고, 작가가 아닌 일반 독자의 투고가 있다는 점이다.

신경숙 표절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대형 문학 출판사도 2015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삼았다. 계간 '문학동네'가 새로 구성한 2기 편집위원진에는 영화평론가, 문화평론가, 음악평론가가 포함됐다.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문화 전반으로 의제를 확장하고, 삶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